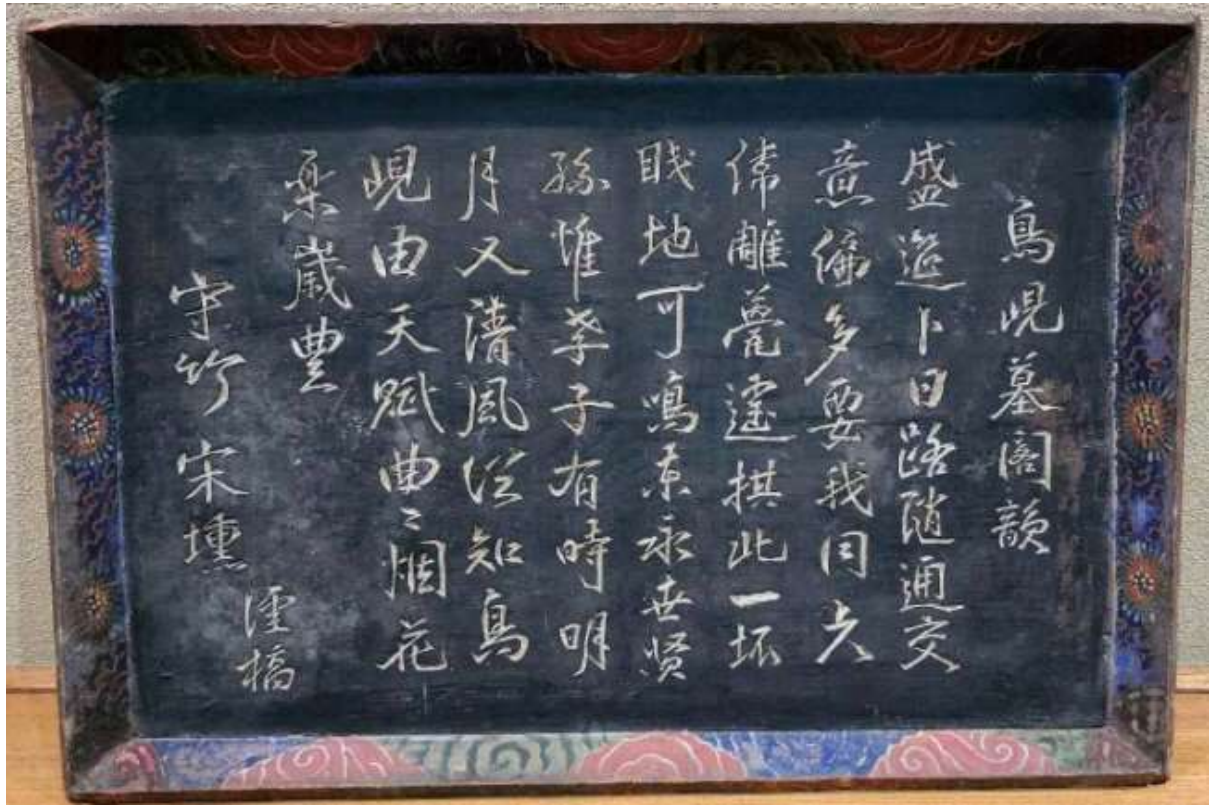


송진우 부친 송훈이 쓴 시판 내달 일본서 귀환



일본 거주 사업가가 국내 기증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고하 송진우(宋鎭禹·1890~1945)의 부친으로 신식학교인 담양학교를 설립한 송훈(宋燾·1862~1926)이 묘각(墓閣·무덤 옆에 지은 건물)에 직접 쓴 시판(詩板·사진)이 재일 한국인 사업가에 의해 기증돼 한국으로 돌아온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일본 도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사무소에서 19일 오전 ‘조현묘각운(鳥峴墓閣韻)’ 시판 기증식을 진행했다. 시판에는 송훈이 전남 담양군 창평면 조현 지역에 새로 지은 묘각을 기념하고 마을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의 칠언율시가 적혀 있다. ‘고하 송진우 평전’에 따르면 송훈은 신학문 수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사재로 담양학교를 설립하고 아들 송진우도 신식학교에 보낸 선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시판은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김강원 대표의 세 번째 문화유산 기증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일본의 유통 시장에 나온 한국 문화유산인 ‘백자청화김경온묘지(白磁靑畵金景溫墓誌)’와 ‘백자철화이성립묘지(白磁鐵畵李成立墓誌)’를 발견해 일체의 보상이나 조건 없이 국내에 기증했다.

국가유산청은 “시판은 다음달 국내로 운송되며 보존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언론과 대중 공개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